

■ ‘제13기 광남일보 글로벌리더 아카데미’ 수료식

“지역사회 최상급 인적 네트워크…졸업은 새로운 시작”

16강의 수업…태국 치앙마이 워크숍 등 ‘화합의 여정’

전민수 원우회장 등 수료증 전달…공로·표창패 수여도

광주·전남 지역사회를 이끌어 가는 리더들의 노하우와 지식을 공유하고 최상급 인적 네트워크를 형성해 온 ‘광남일보 제13기 글로벌리더 최고지도자 아카데미’가 1년여 대장정을 마쳤다.

지난 4일 광주 동구 호텔아트하임에서 열린 ‘제13기 글로벌리더 최고지도자 아카데미 종강 및 수료식’에는 이승배 광남일보 글로벌리더 아카데미 원장 겸 광남일보 사장과 원우 40여명이 참석했다.

지난 3월20일 개강한 제13기 광남일보 글로벌리더 아카데미는 16강의 수업과 4월 ‘원우회의’ 밤, 5월 부여 일대 관광, 6월 한빛원전 원우기업 탐방, 7월 목포·신안 일대 관광, 11월 태국 치앙마이 워크숍 등 원우 간 단합과 화합을 위해 숨가쁘게 달려왔다.

올해 마지막 공식행사인 종강 및 수료식에서는 13기 원우를 대상으로 수료증 전달과 공로패 및 표창패가 수여됐다.

제13기 아카데미 운영을 위해 헌신한 1팀 강성선 원우, 2팀 이종만 원우, 3팀 김영재 골프위원장, 송현미 문화탐방위원장, 집행부 임원인 조기욱 사무총장, 박은화 재무총장, 임중재·정광래 수석부회장, 전민수 13기 원우회장에 공로패가 주어졌다.

이어 단 한 번도 결근하지 않고 모범을 보여준 유명숙, 김재홍, 조기욱, 박화실, 박미인, 박혜경, 송현미, 설정웅, 양동웅, 손옥희, 김은정 원우에게는 표창패가 전달됐다.

이날 이승배 원장은 ‘고마움을 표하고 싶다’면서 10여명의 원우에게 선물용 증정해 훈훈함을 더했다.

수료식을 마친 원우들은 인근 커피숍으로 이동, 다음 주 예정된 송년 모임과 내년 동창회 출범을 이야기하며 못 다한 이야기를 이어갔다.

이승배 광남아카데미 원장 겸 광남일보 사장은 “13기 원우들이 원우회장을



4일 오후 광주 동구 호텔아트하임 대연회장에서 열린 ‘제13기 글로벌리더 아카데미 종강 및 수료식’에 참석한 이승배 광남일보 글로벌리더 아카데미 원장 겸 광남일보 사장과 전민수 13기 원우회장을 비롯한 원우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아카데미 종강 및 수료식에는 13기 원우를 대상으로 수료증 전달과 공로패 및 표창패가 수여됐다.

중심으로 토크를 펼쳤다. 어느 기수보다 모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뿌듯함을 느꼈다”면서 “그동안 원우분들이 보여준 따뜻한 정을 오랫동안 간직하겠다”고 말했다.

전민수 13기 원우회장은 “모든 원우를 대표해 최근 사장으로 취임하신 이승배 원장님께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면서 “무거워진 어깨만큼 원우들이 힘이 되겠다”고 전했다.

이어 “졸업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을 의미한다”면서 “그동안 정들었던 마음을 내년 동창회에서 끈끈하게 이어가자”고 덧붙였다.

한편, 2026년 3월26일 개강하는 제14

기 광남일보 글로벌리더 아카데미는 지역사회 최상급 인적 네트워크를 구축해 품격 있는 비즈니스 교류의 장이 되도록 운영할 예정이다.

임영진 기자 looks@gwangnam.co.kr

전남도의회, 아름다운가게 ‘ESG 기부 물품 전달식’

의원·직원, 사회적 책임 실천

자원순환 물품 2639점 전달

전남도의회(의장 김태균)는 지난 5일 아름다운가게에서 ‘ESG 기부물품 전달식’을 열고, 의원과 직원들이 정성을 모아 기증한 자원순환 물품 2639점을 전달했다.

이번 전달식은 전남도의회가 2023년부터 꾸준히 실천해 온 ESG 기반의 ‘사회적 책임’ 활동의 일환으로 마련된 행사다.

올해에는 지난 10월부터 의원과 직원들이 의류, 생활용품, 도서, 소형가전 등 다양한 물품을 자발적으로 기부하며 자원순환과 나눔 실천에 적극 참여했다.

이날 기증된 물품들은 아름다운가게 바자회를 통해 판매되며, 판매 수익 전액은 지역 내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데 사용된다.

아름다운가게 관계자는 “도의회에서



전남도의회는 최근 아름다운가게에서 ‘ESG 기부물품 전달식’을 열고, 의원과 직원들이 정성을 모아 기증한 자원순환 물품 2639점을 전달했다.

보내주신 물품 하나하나에는 따뜻한 마음과 배려가 담겨 있다”며 “나눔 실천을 통해 지역사회에 용기와 희망을 전하는 모든 분들의 진심 어린 동행에 깊이 감사드립니다”고 말했다.

김태균 의장은 “ESG 기부물품 전달은

환경과 사회적 책임에 대한 공공의 역할을 바로 세우는 전남도의회의 노력이고, 약속”이라며 “전남도의회는 앞으로도 상생과 책임의 가치를 바탕으로, 지역사회에 긍정의 에너지를 전하는 ESG 활동을 꾸준히 확산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전남도의회는 이번 기부물품 전달식을 계기로 친환경·자원순환 중심의 ESG 캠페인을 지속 강화하고,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사회적 책임 활동을 더욱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이현규 기자 gnnews1@gwangnam.co.kr

(사) 코코넛, 삼성꿈장학재단 국외사업 뿔쳐

감비아 기초교육 지원으로 서아프리카 교육격차 해소 나서

(사) 코코넛 한국분부가

2025년 삼성꿈장학재단 글로벌 국외장학사업에 광주광역시 지역에서 처음으로 선정되며 서아프리카 감비아의 교육 발전에 새로운 전기를 마련했다.

이번 선정으로 코코넛은 감비아 비질로 지역 초등학교 30명을 대상으로 영어와 수학 기초교육을 제공하는 ‘스마일 감비아’ 사업을 추진한다. 대상자는 초등학교 3학년부터 6학년까지의 취약계층, 학교 미등록자, 여학생들로 구성되며, 면접을 통해 선발된다.

사업 기간은 지난 10월부터 내년 7월까지 10개월간 진행된다. 감비아는 영어가 공용어임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영어 읽기와 쓰기 능력이 부족한 상황이라서 기초교육의 필요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코코넛 감비아지부장은 “학부모들의 관심이 커서 학생 오리엔테이션과 함께 학부도 오리엔테이션까지 개최했다”며 “한국 기업의 지원으로 진행되는 프로그



램을 통해 열악한 감비아에 한국을 알리고 지속적인 지원이 이어지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삼성꿈장학재단 글로벌 국외장학사업은 개발도상국의 교육 수준 향상을 목표로 개인 역량 강화에 중점을 두고 있다. 코코넛은 그동안 해외사업을 통해 서아프리카 지역의 교육 환경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활동해왔다.

광주시에 본부를 둔 코코넛은 인권인성 교육, 구호사업, 노인복지문화사업, 환경 개선사업 등 4개 주요 분야에서 활동하는 국제 NGO 단체다.

고선주 기자 rainidea@gwangnam.co.kr



구북구 화순군수와 공직자들이 지방소멸대응기금 120억원 확보를 축하하는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화순군, 지방소멸대응기금 ‘우수지역’ 선정

120억원 확보…전략적 사업계획·실행력 인정

화순군이 2026년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계획 평가에서 ‘우수지역’으로 선정돼 최대 금액인 120억원을 확보했다.

7일 화순군에 따르면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지역 주도의 지방소멸 대응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2022년부터 2031년까지 매년 1조원씩 10년간 재정 지원하는 중앙정부 기금이다. 지자체별 투자계획을 평가해 결과에 따라 차등 배분한다.

군은 서면 평가, 현장 방문, 대면 평가 등 3단계 평가를 거친 결과 최종 ‘우수지역’으로 선정됐다. 군의 전략적 사업계획과 뛰어난 실행력을 인정받은 결과로 지속적인 노력과 철저한 준비가 제때 결실을 이룬 것이다. 군은 지방소멸 대응을 위

한 재정적 기반을 마련함과 동시에 인구유입과 정착을 위한 실용적 사업 추진에 한층 탄력이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에 확보한 120억원은 인구유입과 정착 지원을 위한 다양한 사업에 사용된다. 주요 사업에는 청년·신혼부부 만원 임대주택 지원, 화순형 24시 어린이집 운영, 교통·물류·문화 복합형 터미널 조성 사업 등이 포함됐다.

또 군은 생물의약 제2산업단지를 조성해 국가 백신 생산·면역치료 거점을 구축하고, 이를 통해 대규모 기업 투자를 유치해 양질의 일자리 창출 및 지속 가능한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할 계획이다.

화순=구영규 기자 vip3355@gwangnam.co.kr

광주5·18시니어오케스트라 ‘창단연주회’ 성료

예술공동체 단원 40명 민주·인권·평화 계승·공유

광주5·18시니어오케스트라가 최근 광주빛고을시민문화관 대공연장에서 창단연주회를 갖고 첫 공식 무대를 치렀다.

지난 2024년 8월 창단한 광주5·18시니어오케스트라는 20세 이상 시니어 단원 40명으로 구성됐다.

5·18민주화운동의 민주·인권·평화 정신을 음악으로 계승·공유하는 것을 목표로 활동하고 있다. 단원들은 5·18 당시 사회초년생·대학생·학생 신분이었으나, 현재는 각자의 삶에서 깊이를 더한 시니어 음악인으로 성장해 이번 무대의 의미를 더한다.

창단 연주회는 5·18 정신의 정체성과 가치를 음악으로 풀어내는 데 초점을 맞



췌다. 반젤리스의 ‘Conquest of Paradise’를 시작으로 파헬렐의 ‘캐논’, ‘You Raise Me Up’ 등 대중적으로 친숙한 곡들이 관현악 편성으로 재해석됐다.

공연에는 소프라노 김주연, 색소폰니스트 김예진이 협연자로 참여해 몰입감을 높였다. 또한 박창선·정현금의 라인댄스 공연도 더해져 클래식과 무용이 어우러진 다채로운 무대로 꾸며졌다. 정재경 기자



구례군은 최근 체류형농업창업지원센터 대강당에서 도시민의 안정적인 농촌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운영한 체류형농업창업지원센터 9기 교육생 수료식을 개최했다.

구례군, 체류형농업창업지원센터 수료식

구례군은 최근 체류형농업창업지원센터 대강당에서 도시민의 안정적인 농촌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운영한 체류형농업창업지원센터 9기 교육생 수료식을 개최했다.

수료식은 수료생과 관계자 등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수료증 전달과 교육생들의 노고를 격려하는 축하, 기념 촬영 순으로 진행됐다. 수료생 30명은 지난 10개월간 시설에 체류하며 작물 재배 교육과 농기계 사용법, 구례역사와 문화 알기 등의 다양한 주제로 총 34회, 115시간에 걸쳐 교육을 받았다.

센터는 2017년 개소 이후 총 246세대

280명의 수료생을 배출하였으며, 올해 수료생 중 11세대 14명이 지역에 정착할 예정이다.

김순호 구례군수는 “지난 10개월의 교육이 수료생들의 새로운 삶을 준비하는 든든한 토대가 됐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개개인의 소중한 꿈들이 구례에서 아름답게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구례군은 내년 1월 30일까지 체류형농업창업지원센터 10기 교육생 35세대를 모집한다. 자세한 사항은 구례군 농업기술센터 귀농귀촌팀 (061-780-8085)으로 문의하면 된다. 구례=김귀진 기자 kkinj@